

numbers 제 80호



주요 내용

2021. 01.15

1. 이번 주 주제 : [아동 학대 실태]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 11차]
- 1월 초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6개월된 아이가 입양된 뒤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건이 1월 2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지켜줄게!” 등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41,000여 건이나 되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3분 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80호는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또다른 '정인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가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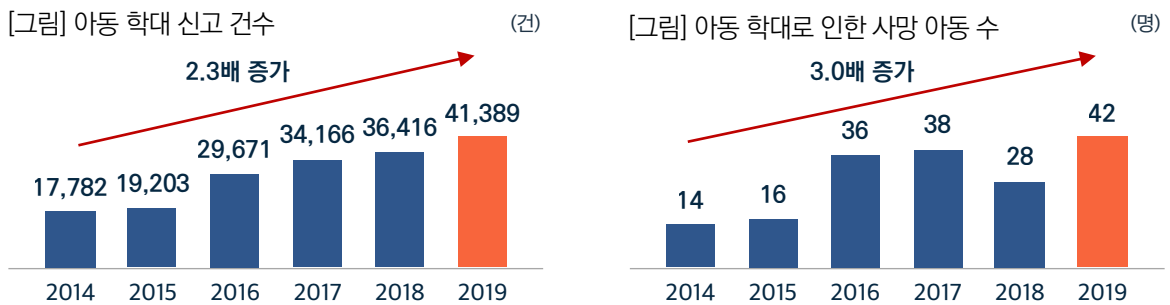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의 아동 학대, 평균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으로 2014년 17,782건 대비 2.3배 증가했다. 41,389건은 하루 평균 113건, 시간당으로는 4.7건 정도이며, 이는 13분마다 1건 정도되는 수치이다.
-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2014년 14명 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 사망 아동의 45%는 0~1세의 신생아 및 영아로,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0.08.31(2019년 사망 아동수는 잠정적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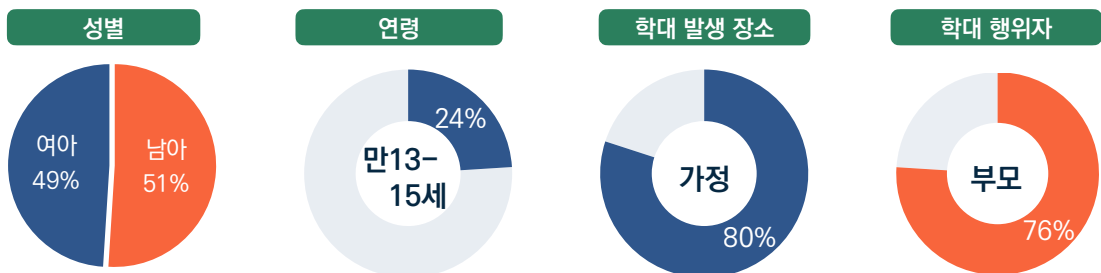
2



'만13~15세' 아동,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학대 당해!

-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1%를 차지해 49%로 여아보다 약간 더 많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24%로 가장 많았다.
- 아동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76%)가 가장 많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가정'에서 가장 의지해야 할 대상인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은 학대가 행해졌다는 점은 아동 학대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그림] 아동 학대 피해 실태(2019년)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0.08.3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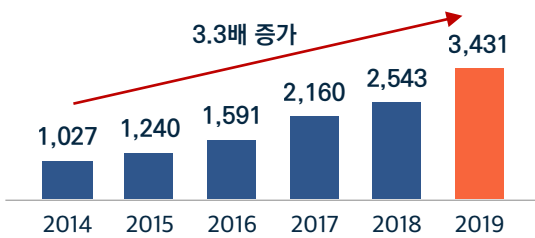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1명(11%), 또 다시 학대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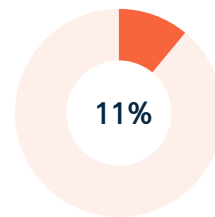
-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받은 건수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해 아동 10명 중 1명 정도(11%)는 재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1,027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3배가 늘어났다.
- 재학대 시기는 최초 학대 판단 후 6개월~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46%), 피해 아동을 2년 이상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한다.

[그림] 재학대 발생 건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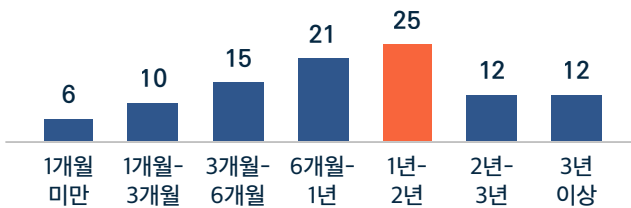
[그림] 재학대 발생 비율(2019년 기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0.08.31(2019년 사망 아동수는 잠정적 수치임).

[그림] 재학대 사례 발생 시기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8.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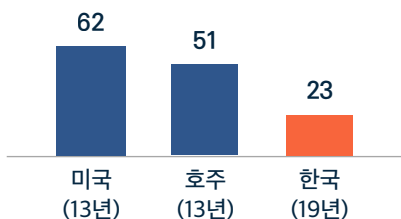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미국, 호주 대비 절반 수준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구급대원, 의료인 등 법에 따라 24개의 직군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4 정도(23%)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62%), 호주(51%) 대비 절반 수준이다.

[그림] 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 학대 신고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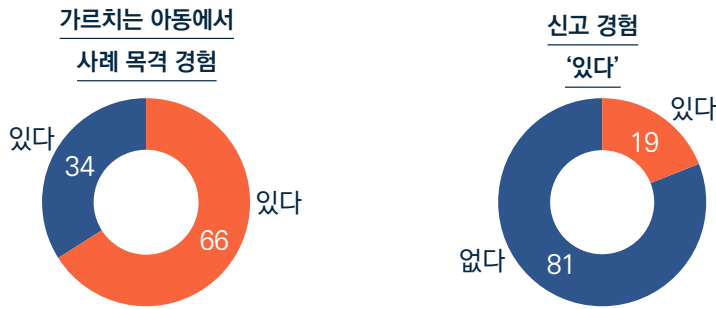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0.8

● 신고 의무자인 교사들, 66%가 아동 학대 목격했음에도 19%만 신고해!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중 한 직군인 유·초·중·고·특수 교사의 경우 2/3(66%)가 아동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81%가 '신고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그림] 아동 학대 의심 사례 목격 경험 및 신고 경험(교사)



*자료 출처 : 한겨레, '상황 나빠질까봐, 확신 없어서...교사 60% 아동학대 신고 망설였다', 2021.01.11 (실천교육교사모임, '아동학대 관련 조사', 유초중고/특수교사 800명, 온라인조사, 2020.01.06-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8188.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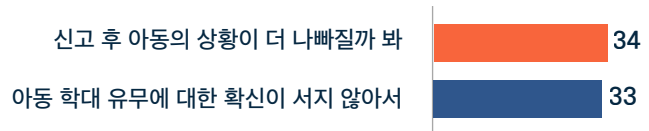
● 교사들, '아동 학대 신고를 망설였다' 60%

- 신고를 망설인 비율은 60%에 달했으며, 그 이유는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가 가장 컸다 (34%). 아동 학대 신고 후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을 지속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림] 아동 학대 신고 망설였는지?



[그림] 아동 학대 신고 망설인 이유



*자료 출처 : 한겨레, '상황 나빠질까봐, 확신 없어서...교사 60% 아동학대 신고 망설였다', 2021.01.11 (실천교육교사모임, '아동학대 관련 조사', 유초중고/특수교사 800명, 온라인조사, 2020.01.06-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8188.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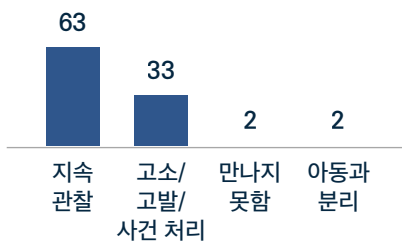
5



학대 행위자와 아동의 분리 조치, 단 2%에 불과!

- 학대 행위자의 최종 조치는 '지속 관찰'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 처리'가 33%였고, '아동과 분리'는 단 2%에 불과했다.
- 현직 교사들이 생각하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신고 뒤 학대 주양육자와 분리'(77%)가 가장 많이 응답된 것만 보아도 분리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분리 미흡이 재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분리 조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8.11
 ** 지속 관찰 : 부모에 대한 양육 방법 개선 교육, 심리 치료, 학대 재발 모니터링 등
 고소/고발 : 고소 및 고발과 수사 의뢰, 응급 조치에 따른 수사 개시 등 사법 절차 진행
 만나지 못함 : 학대 행위자의 행방 불명, 수감, 개입 거부, 사망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

[그림]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교사, 중복 응답)



*자료 출처 : 한겨레, '상황 나빠질까봐, 확신 없어서...교사 60% 아동학대 신고 망설였다', 2021.01.11 (실천교육교사모임, '아동학대 관련 조사', 유치종교/특수교사 800명, 온라인 조사, 2020.01.06~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8188.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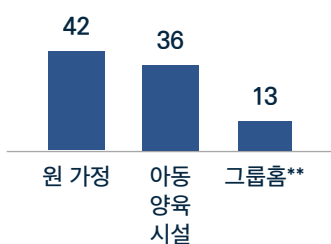
6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42%, 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 학대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와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다. 쉼터에서 생활하던 아동의 퇴소 후 거주지는 '원 가정'이 42%로 가장 높았다.
- 쉼터 퇴소 후 어려운 점으로는 '아동이 이동할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 부족' 34%, '원가정의 학대재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요청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불가피' 26% 등으로 분리 조치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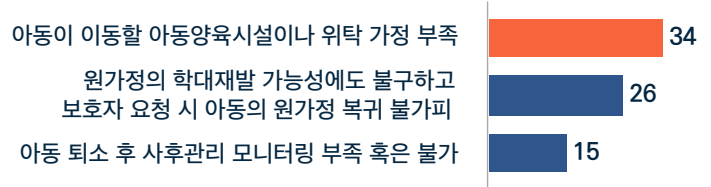
[그림] 아동 퇴소 후 거주지



*자료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한국아동권리학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실태와 정책 과제', 202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0.12.4.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72개소 전수조사, 종사자 281명, 2020.9.1.~30)

**그룹홈 : 가정위탁 보호와 시설 보호의 중간 형태로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보호 아동들을 보호·양육하는 대체 가정(소규모 시설)을 뜻함.

[그림] 쉼터 퇴소 후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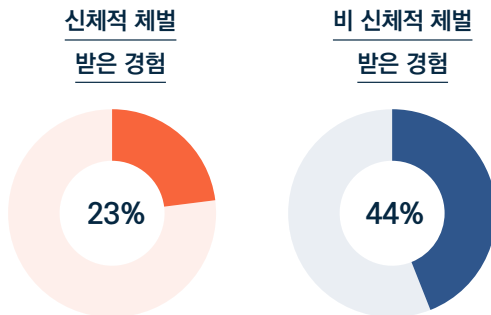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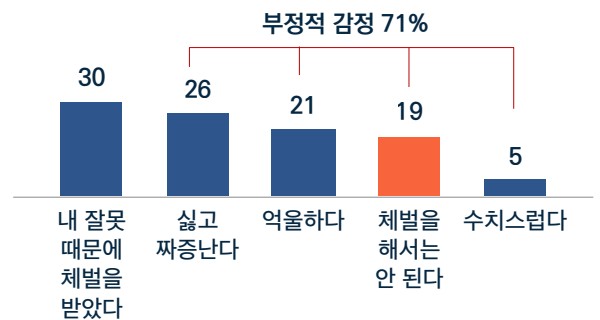
체벌 받은 아동의 감정, **뉘우침보다 부정적 감정(71%) 훨씬 높아!**

- 만14~18세 아동의 1/4 가까이(23%) 최근 1년 안에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체벌 뒤에는 '싫고 짜증난다', '억울하다', '수치스럽다' 등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그림] 최근 1년 내 체벌받은 경험
(만 14~18세 아동/청소년)



[그림] 체벌 뒤 느낀 감정
(1년 내 체벌받은 아동/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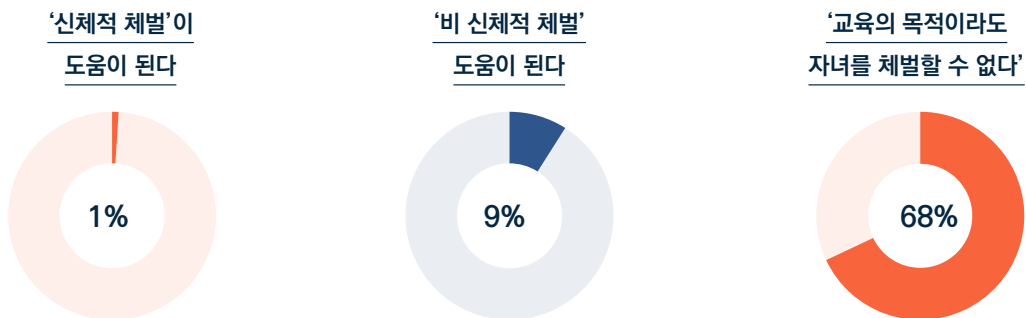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겨레, '체벌이 도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은 글썸...', 2020.05.04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대상 체벌 경험 및 인식 조사', 전국 만14~18세, 아동·청소년 1,000명, 모바일조사, 2020.06.19~22)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6496.html>

● '사랑의 매(?)', 당사자인 아동의 99%는 '행동 교정에 도움 안 된다'

-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데 '신체적 체벌이 도움됐다'는 응답은 단 1%에 불과했으며, 아동의 2/3 이상(68%)은 '교육의 목적이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는 의견에 찬성을 나타냈다. 체벌자는 '사랑의 매'라 하지만 당사자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림] 체벌에 대한 인식(아동/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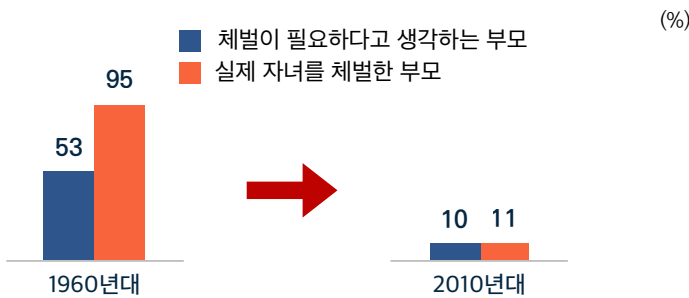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겨레, '체벌이 도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은 글썸...', 2020.05.04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대상 체벌 경험 및 인식 조사', 전국 만14~18세, 아동·청소년 1,000명, 모바일조사, 2020.06.19~22)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6496.html>

● ‘자녀 징계권’, 민법 제정 이후 63년 만에 삭제(2021년 1월 8일)

-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자녀 징계권 삭제’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 이로써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였다.
-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42년 앞선 1979년에 세계 최초로 체벌을 금지했다. 처음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체벌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반발이 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벌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모와 체벌을 하는 부모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1960년대만 해도 95%에 달하던 체벌 비율이 2010년에는 11%로 줄었으며, 체벌의 필요성도 53%에서 10%로 급감했다. 이는 법적 제제가 실제 체벌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스웨덴 부모의 체벌에 관한 인식 변화(1979년 체벌 금지 이후)



*자료 출처 : 스웨덴 보건사회부/세이브더칠드런(Government Offices of Sweden & Save the Children Sweden), 'Never Violence - Thirty-Five Years on from Sweden's Ab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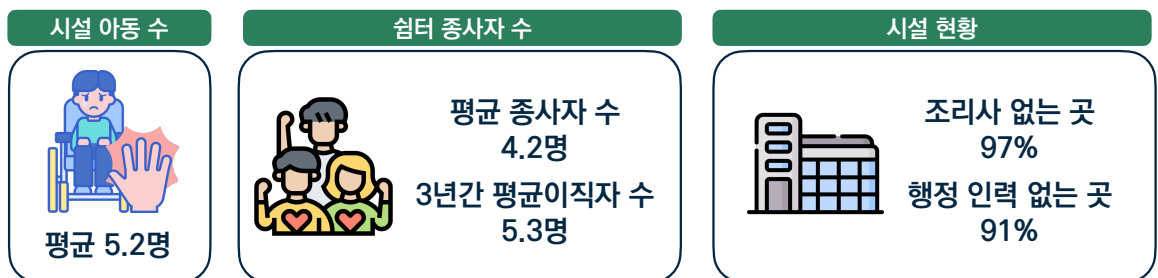
8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2개소가 운영 중이며, 평균 종사자 수가 4.2명인 것에 반해 3년간 이직한 종사자 수는 평균 5.3명으로, 이직이 빈번한데, 그만큼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리 조치’의 주시설인 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림]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자료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한국아동권리학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실태와 정책 과제', 202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0.12.4.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72개소 전수조사, 종사자 281명, 2020.9.1.~30)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전국 290명에 그쳐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부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지난해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에 배치되어 52%의 시군구에만 배치된 상황이며, 최소 필요 인원 832명의 35% 수준인 290명이 배치되어 있다.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24시간 신고 접수부터 출동, 조사, 응급 조치, 사후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



*자료 출처 : 한국일보, '지원자 없어 제비뽑기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석달, 2021.01.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015120005736>



시사점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보기를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회의에 빠질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일명 '정인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만날 때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는 정말 많다. 아동 학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 학대의 76%는 부모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3쪽 참조).

아동 학대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첫째 원인은 부모 요인이다. 부모의 정서적, 성격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성격적 특성이 형성되어서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서 학대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아동 요인이다. 자녀의 발달이 더디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부모의 자녀 학대를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정적이고 사회적 요인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가족주의이다. 내 가족의 안녕과 평안함이 삶의 목표이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가족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친권 의식 혹은 집착이 강해서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부모는 내 자식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해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또 주변 사람들도 가정 문제는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지 제 삼자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생명의 존엄과 권리를 부모라고 해서 침해할 수는 없다. 서구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의식이 신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인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데서 힘입은 바가 크다. 교회가 부모에게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의 부모자녀 간 가치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여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버리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아동 학대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학대받은 아동과 가해자 부모와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대받은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한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대받은 아동을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학대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려는 '가족 중심'의 인식이 여전히 있고, 현실적으로는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쉼터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72곳에 불과하다. 한 쉼터에 최대 입소 인원은 7명이므로 전국 쉼터에서 돌볼 수 있는 아동은 약 500여 명에 불과하다. 2019년 학대 신고 건수가 약 41,000여 건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쉼터 운영은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쉼터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쉼터가 국가와 사회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면, 교회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1월 초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코로나19 관련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에서 그동안 국민인식을 추적 조사해 왔는데 3차 유행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난 주(1월초)에 11차 조사를 실시, 이번주 수요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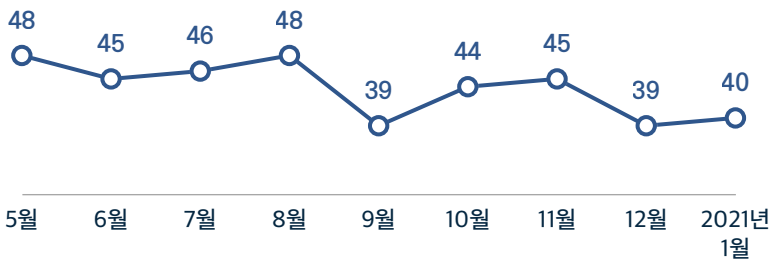
1



1월 초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회복 수준을 '완전히 회복=100점', '전혀 회복하지 못함=0점'을 제시한 뒤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사태 1년째를 맞은 1월 초 일상 회복 수준의 평균값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0점으로 나타났다.
- 동일 문항을 적용한 2020년 5월부터 추이를 보면,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의 회복도는 2차 대유행 시기이던 9월 및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달 12월에 각각 39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번 1월 초까지도 최저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일상회복 수준(0점~100점)** (%)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 2021.01.14.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94명, 온라인조사, 2021.01.08.~10)
** 100점: 완전 회복, 0점 전혀 회복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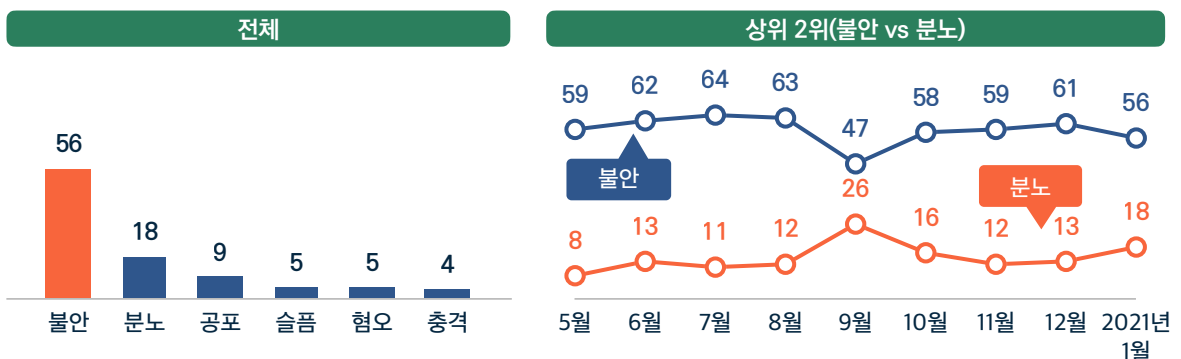
2



코로나19 뉴스나 정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불안' 56%, '분노' 18%

- 코로나19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 그 결과 '불안'이 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노'(18%), '공포'(9%), '슬픔'(5%), '혐오'(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뉴스나 정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 2021.01.14.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94명, 온라인조사, 2021.01.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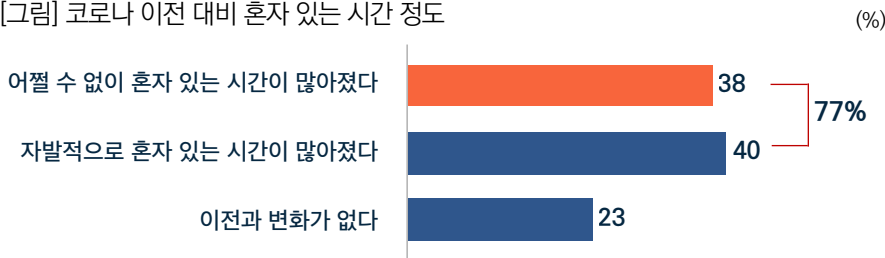
3



코로나 이전 대비, '혼자 있는 시간 많아졌다' 77%

- 코로나 이전보다 현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지를 물어본 결과,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38%,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40%, '이전과 변화가 없다' 23%로 대부분의 국민이 자발적이든 불가피하게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혼자 있는 시간 정도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 2021.01.14.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94명, 온라인조사, 2021.01.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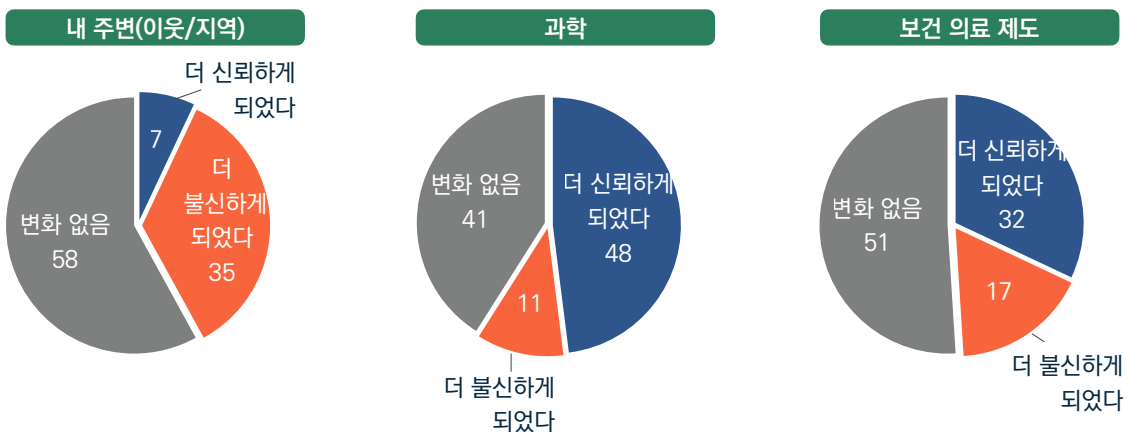
4



국민 3명 중 1명 이상, 코로나 이전보다 '이웃/지역'에 대해 '더 불신하게 되었다'

- 코로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내 주변(이웃이나 지역)에 대해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질문한 결과, '더 신뢰하게 되었다' 7%, '더 불신하게 되었다' 35%, '변화 없음' 58%로 사회적 신뢰도가 코로나로 인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48%)가 과학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응답해,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과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 1년, 그 이전 대비 신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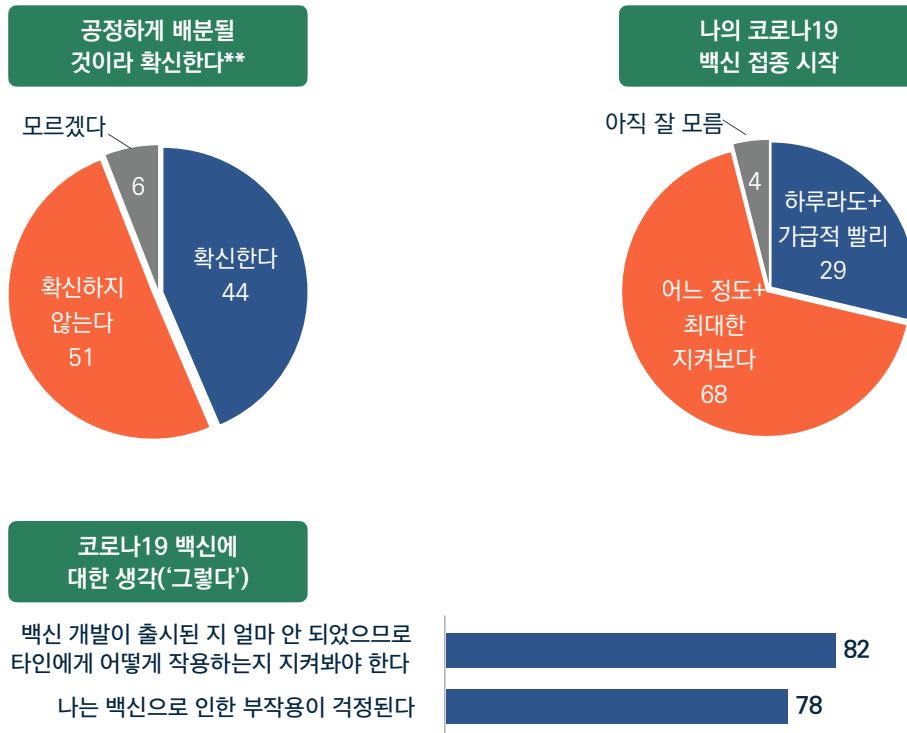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 2021.01.14.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94명, 온라인조사, 2021.01.08.~10)



백신,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 51%

-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그 백신이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확신하는지 물어보았는데, ‘확신한다’ 44%, ‘확신하지 않는다’ 51%로 백신 배분의 공정성에 회의적인 인식이 국민의 절반 가량이나 되었다.
- 코로나19 접종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이상(68%)이 ‘어느 정도(최대한) 지켜보다가 맞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 (%)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조사’, 2021.01.14.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94명, 온라인조사, 2021.01.08.~10)

** ‘매우+약간’, ‘전혀+별로’ 합한 수치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인구문제, '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

동아일보_2021.01.11.

["은퇴후 자녀교육·결혼 1.7억 필요...퇴직급여는 1억도 안 돼"](#)

연합뉴스_2021.01.11.

['청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시대 다가와... 연금 보험료 3배 될수도](#)

동아일보_2021.01.12.

["국민 84% '한국사회 갑질 심각'...70%는 '그냥 참았다'"](#)

연합뉴스_2021.01.13

[이재명, '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단독 1위\(한국갤럽\)](#)

머니투데이_2021.01.07.

양
극
화
/
경
제

[현 정부들어서 양극화 심화, 순자산 상하위 20% 격차 166배](#)

중앙일보_2021.01.13.

[일자리 양극화, 30·40대의 분노 "왜 노인들 일자리만 늘리나"](#)

매일경제_2021.01.13.

[한번 흡수저는 영원한 흡수저...30세 절반 "노력해도 신분상승 어렵다"](#)

이데일리_2021.01.10.

[155분 vs 83분...집값 차이가 '초등생 학습시간' 격차로](#)

한겨레_2021.01.13.

[기업 대상 AI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뉴스스_2021.01.14.

[코로나·영끌·빚투...작년 가계대출 사상최대 100조 불었다](#)

연합뉴스_2021.01.14.

코
로
나
1
9

[5111명에게 물었다, 코로나 1년... "온라인에 질렸다"](#)

조선일보_2021.01.09.

["시댁과 비대면...부부싸움 줄었어요"](#)

조선일보_2020.01.09.

넘버즈 칼럼

사람, 세상 살림의 일꾼

김익신 목사
광주다일교회 담임목사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창세기2:4-5)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처음 책에 나온 사람을 지은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눈 여겨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과 기대가 보입니다. 땅을 갈 사람, 안개만 자욱한 세상에 푸른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갈 책임자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세상 살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생명과 달리 하나님이 손수 자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두드러진 방법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안하게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황폐하고 안개만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을 때 만도 못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더 푸르고 아름답게 생명 살림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자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여 더욱 황폐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는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자욱하고, 지구 온도는 매해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은 보이게 녹아가고 있고, 동물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야생동물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고, 새와 벌은 앓을 나무와 꽃을 찾지 못하고, 깊은 바다 생물까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절박함과 황폐함 속에 우리 인간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건강을 지구의 건강과 분리할 수 없고, 사는 땅이 황폐한데 인간만 행복할 수 없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꺼지지 않고 몇 달이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많아진 태풍과 줄기차게 내리는 폭우도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구멍 난 오존층으로 생기는 피부질환을 햇빛 차단제와 피부 연고로 막을 수 없고 뜨거워지는 지구를 냉방기로 식히는 일도 이제는 그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게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더 늦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을 때 코로나가 주는 ‘잠시 멈춤’의 지혜로 하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피조물로 형제 자매가 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 행복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일갈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저주 하리라
농부와 토종 종자와 우애의 공동체를 다 망치고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이토록 고갈시키고
막대한 빚더미만 떠넘긴 어른들을

더 이상 남겨둔 미래도 없이
삭막한 도시와 번쩍이는 기계 더미와
역습하는 기후와 복수하는 대지 만을 남겨준
어른들을 증오하며 공격 하리라”(박노해, 그날이 오면)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한국중앙교회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자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79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